

### “시민의 외침 가슴 깊이 새길 것”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당선인 조지훈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185일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전주의 사랑을 받고 전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주도 바뀌어야 산다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전주 발전과 번영의 기회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결정적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기회는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만든 전주 시민이 직접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인기를 함께하는 민선 9기 전주시정은 전주 시민이 성취한 기회를 실제 성과로 진취해 확대하겠습니다.

전주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10년 혜성처럼 등장한 상당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었듯이 비전과 준비된 진자 실력으로 전주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전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전주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 “다시 뛰는 군산의 여정, 시민과 함께”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가슴 벅찬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지율 3.8%의 작은 시작이었지만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낮은 정치와 기득권에 진 빛 없이, 오직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만 평생 빛을 갚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잃어버린 8년을 넘어 군산을 다시 뛰게 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약속드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벨트 구축 △군산조선소 재가동

△민생경제 회복 △1층 시장실 개방 등 5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군산 발전을 위해 모두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과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쏟아내어 확실하게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더 낮게 섬기며,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뛰는 군산 그 위대한 여정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산 대 전환 시대 열겠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익산이 다시 뛰니다.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 새 익산의 시작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 최정호에게 익산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최정호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침체된 익산을 깨우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자 승리입니다.

경선과 본선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다른 선택을 하신 시민 여러분의 뜻 또한 무겁고 결

하게 받겠습니다. 오늘의 승리 앞에 기쁨보다는, 익산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번

저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갈라진 외침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남이 아닌 결과로 익산의 지도의을 증명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인 투명한 행정을 펼쳐겠습니다.

머뭇 있던 익산의 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자랑스러운 새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 중심의 정읍, 반드시 만들겠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이학수에게 다시 한 번 정읍의 미래를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읍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고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명령을 받겠습니다.

민선 9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정착 지원, 어르신 복지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

화·관광산업과 농생명산업,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정읍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적극 확보해 정읍 발전의 동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시민 중심의 결과로 증명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 “일 잘하는 경제시장으로 보답”

양홍모 남원시장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남원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당선인 양홍모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참치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잃어버린 남원의 자존심을 되찾아 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진 '위대한 남원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남원의 생존이 걸린 '시민과의 연속한 실천'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기 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실천위원회(가칭)를 구축하겠습니다.

비록 당선인 신분이지만, 다음주

부터는 예산 실을 직접 방문해, 남원시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최대한의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기대와 성원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난 만큼 저를 열렬히 지지하신 분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분도 모두 하나 된 남원시민입니다. 시민 모두를 중심으로 섬기는 시장이 되어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평선의 꿈, 새만금의 미래로”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먼저, 민선 8기에 이어 다시 한번 김제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김제의 도약을 더 크게 키우고 더 분명한 결실로 완성하라는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지난 4년, 김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성과로 검증된 리더십과 무거운 책임을 바탕으로 김제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저 정성주는, 현재 추진 중인 대영

국책사업과 핵심 정책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며, 민선 9기 시민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들을 것이고,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지평선에서 시작된 꿈을 광활한 새만금의 미래로 펼쳐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권을 바라보겠습니다.

### “더 큰 완주 만들어 나갈 것”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유희태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완주의 미래를 맡겨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결과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군민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까지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함께 뛰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흘린 땀과 헌신

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돋아 버려주고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소중한 완주군민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하나 되고, 더 큰 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보다 내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이 이겼습니다. 완주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뜨거운 열정으로 뛰겠다”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대내외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앞에, 깊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진안별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섰던 주신 현준진·고준식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두분의 후보님들의 좋은 정책은 변함없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전춘성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안의 중단 없는 발전을 열망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진안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을

만나며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매서운 질책도 모두 진안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진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물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군민 여러분의 뜻도 모두 진안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진안의 미래를 위해 뛰겠습니다.

### “기본사회 무주, 대도약 무주”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먼저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은 황인홍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주의 더 큰 발전과 군민 행복을 바라는 모든 군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을 만나며 무주의 희망과 과제를 함께 확인한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까지도 무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달라는 군민 여러분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동안 대한민국 기

본사회 1번지 무주를 만들고, 걱정 없는 농업과 풍요로운 농업을 실현하며, 며칠 더 머무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인 무주를 글로벌 태권도시로 도약시키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기본사회 무주, 대도약 무주'를 무주군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누구나 부러워하는 장수”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저를 위해 애써주신 선거운동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재선은 결코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장수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중단 없는 장수 발전의 승리와, 군민 행복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우리 2만 1천여 장수군민은 더 이상 농부권 소외지역의 주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힘 있는 동부권 중심지로

도약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장수군수로 다시 선택해 주신 뜻은 무겁게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누구나 부러워하는 장수를 만들어 가며 행복한 농업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선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긴장감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확실한 미래 성장 견인하겠다”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임실군수 당선인 한득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우리 임실은 12년 동안의 무소속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믿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군수로서 저는 군민 여러분께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약속드렸습니다.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로의 발걸음은 우리 임실의 농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든든하게 채워줄

“더 큰 임실의 뼈대를 만드는 인이 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 갈등과 반목은 오늘로 모두 내려 놓아 주십시오.

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이웃이고 가족인, 따뜻한 우리 임실입니다. 나쁜 내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임실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것만 있을 뿐입니다.

“힘 있는 여당”을 말씀드렸지만,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 “순창을 더 새롭게”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6.3지방선거를 통해 저 최영일을 선택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오은미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으므로 승패를 떠나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이로 돌아갈 순창발전을 위해 포괄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신 군민여러분들의 단란된 의지와 협력과 같이 다가오는 4년 동안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최영일은 민선9기에 군민과 함께 한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 등 10가지 순창비전 공약을 만

스드렸습니다.

이 약속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 군민들의 선택에 믿음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최영일은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민선9기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순창을 발전시키려는 엄중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